

우리나라, 중동 플랜트시장 점유율 1위

박복영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bypark@kiep.go.kr, Tel; 3460-1149)

박철형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chpark@kiep.go.kr, Tel; 3460-1092)

주요 내용

- ▣ 최근 3년간 우리나라는 중동 전체 건설·플랜트 발주의 9.3%를 수주하여 일본,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는데, 2005년 플랜트부문에서는 시장점유율 16%로 1위를 차지하였음.

 - 우리나라는 특히 석유·가스 및 석유화학 분야에서 15~20%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쿠웨이트와 카타르에서 수주 실적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쿠웨이트에서는 전체 발주액의 약 절반을 우리 업체가 수주함.
- ▣ 최근 오일붐과 석유 및 석유화학 분야 투자 확대 등으로 중동(걸프지역 8개국)의 플랜트 발주 규모가 3년간 100%씩 증가하여 2005년에는 1천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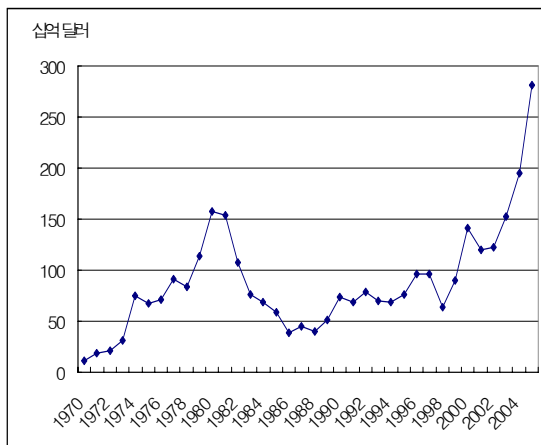
 - 부문별로는 석유·가스와 석유화학분야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며, 국별로는 UAE(27%), 카타르(23%), 사우디아라비아(19%) 3개국이 전체 발주액의 70%를 차지함.
- ▣ 당분간 중동의 플랜트 발주규모가 증가하고 우리 업체의 수주비율도 높아져 중동 플랜트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선과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쿠웨이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수주지역을 UAE, 카타르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라크 신정부 구성을 계기로 이라크 전후복구사업 참여확대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 이란과 오만 등에서는 현지화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EU, 미국, 일본, 중국 등이 GCC와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플랜트 설비 조달선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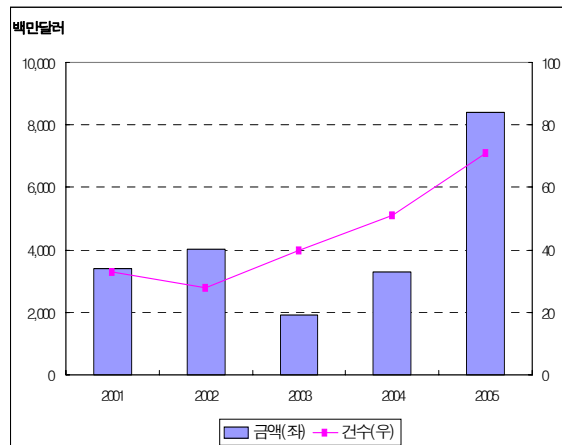
- 최근 고유가로 인해 중동 산유국으로 막대한 오일머니가 유입되면서 제2의 중동 봄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임.
 - IMF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동으로 유입된 오일머니는 1조 5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1970년대 오일 붐 시기 10년간의 오일머니 규모와 비슷한 수준임.
 - 이러한 오일머니 덕분에 중동 각국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상품수입과 건설·플랜트 발주규모도 증가하여, 중동 오일머니를 벌어들이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도 치열한 상황임.
-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부진에 빠졌던 우리나라 플랜트 산업도 최근 중동 봄 덕분에 수주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의 해외 플랜트 총수주액은 158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89% 증가하였음.
 - 전체 플랜트 수주 중 53%에 해당하는 84억 달러를 중동에서 수주하고, 전년대비 증가율이 156%에 이르러 중동 봄이 플랜트산업의 회복을 주도하고 있음.

그림 1. GCC 오일머니 유입액



자료: IMF(2005),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그림 2. 한국의 중동 플랜트 수주 현황



자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본 보고서의 목적은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중동 산유국들의 플랜트 발주추세와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수주동향을 분석하는 것임.
- 중동 플랜트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건설·플랜트 발주규모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중동 전문 경제주간지인 *MEED*誌에 월별로 발표되는 주요 입찰정보를 국별, 부문별로 모두 분류하고 분석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음.
- 하지만 *MEED*誌가 중동지역의 모든 입찰정보를 다 담고 있지 않고, 사업부문을 정확히 분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추이를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분석대상기간은 1998~2005년의 8년이며, 대상국가는 대부분의 오일머니가 유입되는 GCC 6개국과 이란, 이라크를 포함한 8개국(GCC+2)으로 하였음.
- * GCC는 걸프협력회의체(Gulf Cooperation Council)의 약자로 중동 걸프지역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의 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를 가리킴.

2. 중동 건설·플랜트 발주동향

가. 2004년 이후 발주규모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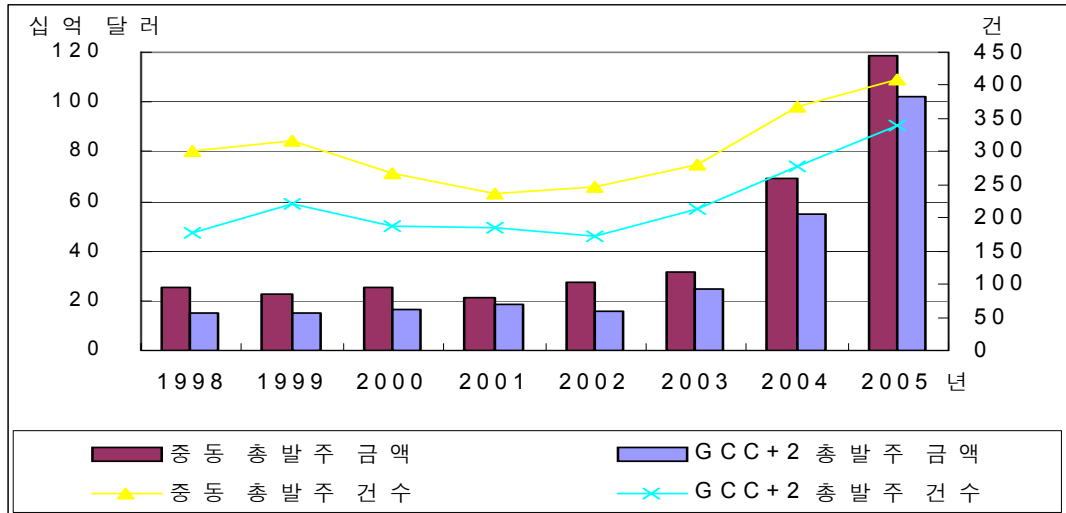
- 중동지역 경제지 *MEED*誌에 발표된 2005년 중동¹⁾ 전체 건설·플랜트 발주규모²⁾는 410건, 1,183억 달러로 최근 시장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1998년에서 2003년까지 250억 달러 내외를 유지하던 중동 건설·플랜트 시장규모가 2004년 이후 매년 약 70~100%씩 급성장하여 2004년 692억 달러, 2005년 1183억 달러에 이름.

1) *MEED*誌에 발표되는 발주국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이란, 이라크, 이집트,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예멘, 수단 등 총 18개국임.

2) 계약금액이 발표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전체의 약 10%로 이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최근 중동 건설·플랜트 시장에서 GCC+2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 내외로 이 국가들의 발주가 중동 건설·플랜트 붐을 주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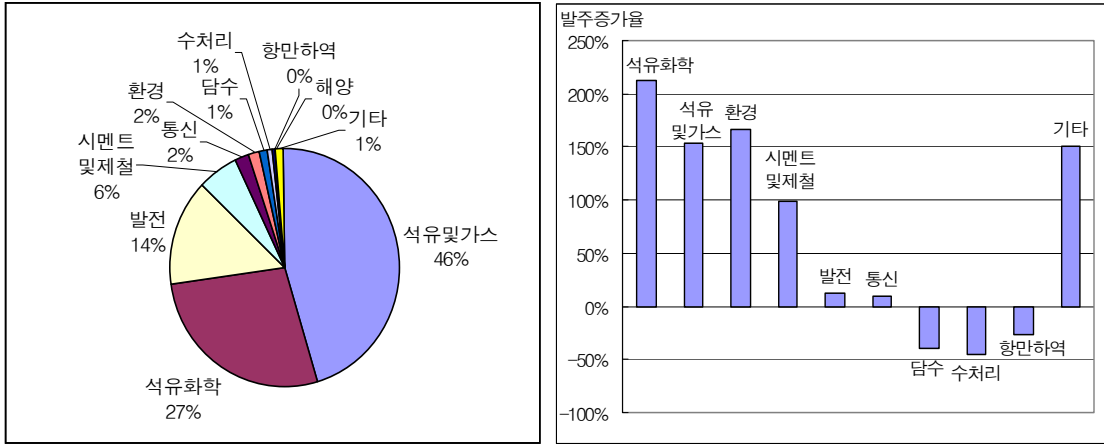
그림 3. 중동 및 GCC+2 건설·플랜트 시장 규모 추이



자료: MEED誌 각 호

- 플랜트 프로젝트가 GCC+2 지역 전체 발주액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플랜트 중에서도 석유·가스, 석유화학, 발전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05년 플랜트 발주액은 전년대비 124% 증가한 703억 달러로 발주총액의 69%를 차지함.
- 2005년 토목부문 발주금액은 전년대비 112% 증가한 220억 달러로 발주총액의 22%를 차지하는 반면, 건축부문은 전년대비 30% 감소한 92억 달러로 발주총액의 9%임.
- 최근 3년간 석유·가스가 GCC+2 지역 플랜트 발주의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석유화학, 발전이 그 뒤를 이어 각각 27%와 14%의 비중을 차지함.
- 석유화학과 석유·가스의 연평균 발주증가율은 212%와 153%로 이 공정들을 중심으로 플랜트 발주가 확대되고 있음.

그림 4. GCC+2 플랜트시장의 부문별 비중과 연간 증가율(2003~05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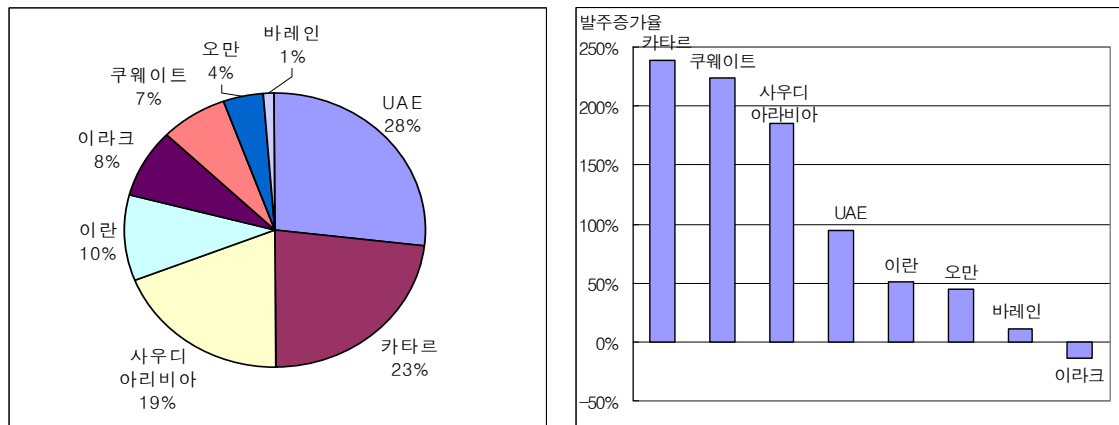


주: 플랜트부문의 세분류 항목은 한국플랜트산업협회의 분류기준을 따랐음.
 자료: MEED誌 각 호

나. 국가별로 차별화된 발주분야

- 건설·플랜트 시장규모를 국별로 보면, 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순이며 플랜트시장의 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임.
- 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3개국은 최근 3년간 GCC+2 지역 건설·플랜트 발주총액 중 각각 27%, 23%, 19%를 차지함.
- 연간 발주규모의 증가율을 보면 카타르와 쿠웨이트가 200%를 넘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이란과 오만, 바레인, 이라크 등은 성장률이 50% 미만으로 낮음.

그림 5. GCC+2 건설·플랜트 시장의 국별 비중과 연간 증가율(2003~05년 평균)



자료: MEED誌 각 호

- 중동 각국은 산업구조와 경제정책방향 등에 따라 발주부문에서도 다소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각국 플랜트시장의 부문별 특징은 [표 1]과 같음.
- 부동산 개발 붐이 불고 있는 UAE는 토목과 건축 부문 발주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가스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카타르는 가스부문 발주비중이 높음.
- 산업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석유화학 발주비중이 높으며, 대규모 가스개발사업과 산업다각화를 추진 중인 이란은 석유·가스와 석유화학 부문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임.

표 1. GCC+2 지역 국가별 발주 특징

	발주 특징
U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CC+2 지역 최대 발주국이며 두바이의 부동산 개발과 아부다비의 석유산업 확장으로 토목, 건축, 플랜트 전 부문에 걸쳐 고른 발주가 이루어짐. - 최근 3년간 발주액 482억 달러 중 토목 37%, 건축 27%, 석유·가스 16%, 발전 10%를 차지함. - 토목, 건축, 석유·가스 부문의 발주증가율은 매년 150% 내외로 금액이 크게 증가함.
카타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전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으로 석유·가스 플랜트를 중심으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시안게임 개최로 토목과 건축 부문 발주도 활발함. - 최근 3년간 발주액이 413억 달러로 UAE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석유·가스 53%, 토목 16%, 석유화학 12%, 건축 9%, 발전 7%를 차지함. - 3년간 연평균 발주액 증가율 239%로 8개국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발전(1,368%), 석유·가스(431%), 토목(246%)의 증가율이 두드러짐.
사우디아라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다각화 추진으로 석유화학 플랜트를 중심으로 발주가 이루어짐. - 최근 3년간 발주액 343억 달러 중 석유화학 발주액이 51%를 차지함. - 석유화학(294%) 및 석유·가스(278%) 발주증가율이 두드러짐.
쿠웨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 생산 및 수출능력 확대와 산업인프라 확충을 위해 석유·가스와 토목을 중심으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발주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발주액 130억 달러 중 석유·가스 41%, 토목 23%, 석유화학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주액 증가율이 224%로 카타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오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가스를 중심으로 발주가 이루어지나 이 부문 발주액은 감소추세임. - 최근 3년간 발주액 78억 달러 중 석유·가스(44%), 토목(20%)을 중심으로 발주가 이루어짐.

표 1. 계속

	발주 특징
바레인	□ 최근 3년간 발주액 22억 달러, 연평균 증가율 11%로 GCC+2 국가 중 발주액 및 증가율이 가장 낮음.
이란	□ South Pars 가스전개발사업과 서부국경지대 석유화학시설 건설로 석유·가스 및 석유화학 등 플랜트 발주가 주를 이룸. - 최근 3년간 발주액 184억 달러 중 석유·가스(42%), 석유화학(32%)을 비롯한 플랜트 발주가 전체의 92%를 차지 - 석유화학과 석유·가스 부문의 발주액 증가율은 각각 136%와 67%임.
이라크	□ 2004년에 전후복구사업의 영향으로 대규모 발주가 이루어졌으나 2005년 발주가 급감함. - 2004년 건축(37%), 석유 및 가스(23%), 발전(20%), 토목(16%) 등에 걸쳐 107억 달러의 발주가 이루어졌으나 2005년 15억 달러로 급감함.

3. 국가별 수주실적

가. 우리나라, 플랜트 수주 1위(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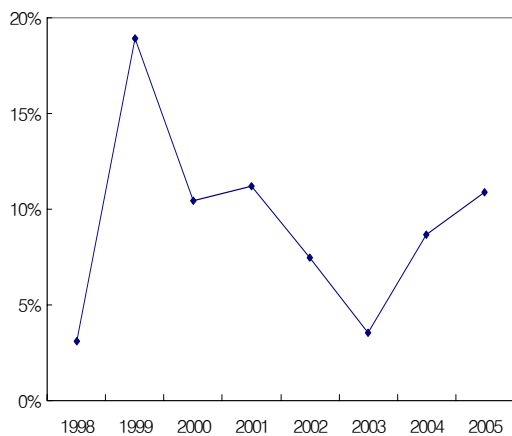
- 최근 3년간(2003~05년) 중동에서 발주된 건설·플랜트 사업의 수주 현황을 국별로 보면 일본, 미국, 우리나라 순이었음.³⁾
 - 일본은 3년간 발주총액 1,794억 달러 중 13%를 수주하여 1위를 기록하였으며, 미국은 12%를 수주하여 그 뒤를 이었음.
 - 우리나라는 발주총액의 9.3%에 해당하는 167억 달러를 수주하였는데, 그 중 약 70%는 2005년 한 해에 이루어진 것임.
 - 2005년에 건축, 토목을 제외한 플랜트만 보면 우리나라가 플랜트부문 발주총액 중 16%를 수주하여 최대 수주실적을 기록함(현지업체 제외).

3) 공동수주가 이루어진 경우 MEED誌에는 각 기업별 혹은 각 국가별 수주액이 분리되어 발표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수주기업이 있는 경우 균등분할을 가정하여 국별 수주액을 계산하였으므로, 국별 수주액이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중동 건설·플랜트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2003년 이라크전쟁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2003년 두 해에 시장점유율이 일시적으로 5% 미만으로 급락하였지만, 최근 중동 건설·플랜트 붐으로 크게 회복하였음(그림 2 참고).
- 중동 건설·플랜트 산업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증가한 것인데, 일본의 점유율은 1998~2002년의 5년간 5.6%에 불과했지만 최근 3년 동안은 약 세 배가 증가한 13.3%에 이르렀음.
- 미국의 점유율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약 3% 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2004년에 발주된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의 대부분을 미국기업이 수주했기 때문이며 이라크의 발주가 급락한 2005년에는 미국의 점유율이 6.5%로 급락하였음.
- 유럽기업 중에는 프랑스만 8%의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독일의 점유율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중동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의 점유율은 3% 수준으로 아직은 낮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된 것으로 분석됨.

그림 6. 한국의 시장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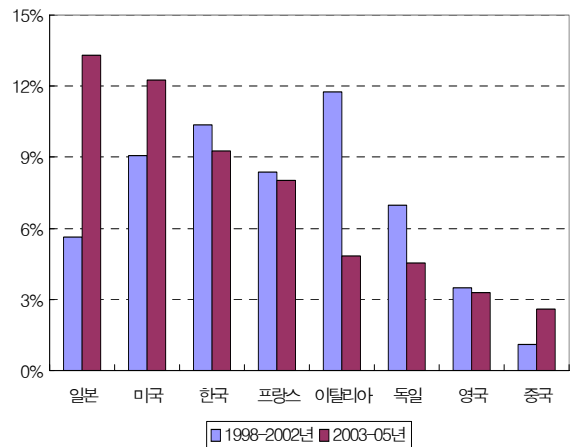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MEED誌 각 호

그림 7. 국가별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자료: MEED誌 각 호

나. 부문별 경쟁력

- 2005년 각국의 수주실적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석유·가스와 석유화학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토목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됨.
- 현지업체를 제외하면 우리 기업이 중동 플랜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가스와 석유화학 분야에서 최고의 수주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각각의 점유율은 21%와 15%임.
- 반면 일본은 토목 전체 발주액의 34%를 수주하였으며, 석유·가스와 환경 부문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수주실적을 기록함.
-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석유·가스와 석유화학에서, 독일은 발전에서, 핀란드는 통신에서, 영국은 용역에서, 중국은 시멘트·제철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임.
- 현지업체들은 각 분야에서 고르게 참여하고 있지만, 특히 플랜트에 비해 공정이 단순한 건축과 토목, 그리고 환경부문에서 높은 수주실적을 보임.

표 2. 2005년 각국의 부문별 수주실적

(단위: 백만 달러, %)

		수주 1위국		수주 2위국		수주 3위국		수주 4위국		
부문	총액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전체	102,034	현지국	27	일본	14	한국	11	프랑스	8	
건축	9,175	현지국	59	그리스	7	레바논	5	터키	5	
토목	22,089	현지국	39	일본	34	네덜란드	10	그리스	4	
용역	506	현지국	29	영국	29	UAE	25	이집트	8	
플랜트	전체	70,264	현지국	19	한국	16	프랑스	12	일본	10
	담수	148	그리스	68	키프로스	32				
	발전	7,531	현지국	20	독일	17	이탈리아	15	프랑스	13
	수처리	24	현지국	50	터키	50				
	시멘트&제철	2,938	중국	60	현지국	19	캐나다	10	미국	5
	통신	770	현지국	40	핀란드	24	독일	16	미국	16
	항만하역	72	현지국	100						
	해양	0								
	환경	1,368	현지국	69	프랑스	10	일본	10	미국	4
	석유·가스	31,467	한국	21	현지국	19	프랑스	13	일본	13
	석유화학	24,893	현지국	15	한국	15	프랑스	14	미국	13
기타	1,054	이탈리아	100							

자료: MEED誌 각 호

다. 지역별 경쟁력

- 각국은 중동지역 국가별로도 차별화된 수주경쟁력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쿠웨이트에서 높은 수주실적을 올린 반면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함.
 - 우리나라는 쿠웨이트 전체 발주액의 51%를 수주하여 쿠웨이트에서 매우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카타르와 이란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됨.
 -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대 수주국이며 오만, 카타르, 바레인 등에서도 양호한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미국은 이라크에서 발주되는 플랜트사업의 54%를 수주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UAE에서도 가장 많은 플랜트사업을 수주한 나라가 되었음.
 - 이탈리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프랑스는 카타르와 쿠웨이트에서, 독일은 이란에서 각각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란과 오만에서는 전체 플랜트사업 중 현지업체의 수주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이 나라들의 강력한 현지화(localization) 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란의 경우 현지업체의 수주비율이 46%에 이르렀는데, 이란은 자국 건설업체의 육성을 위해 최근 입찰시 현지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지조달비율도 더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음.

표 3. 중동 각국에서의 플랜트부문 상위 수주국 현황(2005년)

(단위: %)

	수주국 1위		수주국 2위		수주국 3위	
	수주국	비율	수주국	비율	수주국	비율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16	이탈리아	14	현지국	12
UAE	미국	16	현지국	12	영국	5
쿠웨이트	한국	51	프랑스	13	UAE	8
오만	현지국	38	일본	16	UAE	12
카타르	프랑스	26	일본	22	한국	20
바레인	일본	44	프랑스	33	현지국	12
이란	현지국	46	독일	11	한국	8
이라크	미국	54	핀란드	7	이탈리아	6

자료: MEED誌 각 호.

4. 시사점

- 중동지역에서 우리나라의 플랜트 수주실적이 다른 경쟁국가에 비해 매우 양호해 중동 오일 머니를 환류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고유가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중동의 석유 및 가스 생산능력 확충, 산업다각화를 위한 석유화학분야 투자 확대 등으로 향후 플랜트 발주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플랜트산업의 전망도 양호한 편임.
 - 특히 최근 이라크 신정부가 오랜 진통 끝에 구성된 것을 계기로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이 본격화되어 중동 플랜트 발주가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우리 업체의 중동 플랜트시장 진출 확대 및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유의하고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플랜트 수주에서 쿠웨이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수주지역을 다변화하고, 특히 UAE와 카타르에서의 수주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쿠웨이트는 중동 8개국(GCC+2) 전체 발주액의 7%에 불과함에도 우리나라는 2005년 전체 플랜트 중 42%를 쿠웨이트에서 수주하였음.
 - 석유·가스와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경쟁국에 비해 좋은 성과를 냈지만 토목, 발전, 시멘트·제철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해 진출분야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부문과 유사한 지역에 진출하고 있는 경쟁국은 프랑스인 것으로 분석되어, 특히 프랑스업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중동의 현지화정책이 강화되면서 이란, 오만, UAE에서 특히 현지업체의 참여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국가들에서는 현지 파트너업체의 발굴과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중동 플랜트 수주과정에서 국내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익성 악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업별로 진출분야를 전문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EU, 미국, 중국, 일본 등은 GCC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과 FTA가 체결되면 플랜트설비 조달선이 이 나라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도 GCC와의 FTA 체결 등을 통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